

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방의료 방역관리 현장점검

- 인근 국가 코로나19 발생 증가에 따라, 국내 감염병 관리 상황 현장점검
- 일상 속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

□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, 오늘(26일)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감염병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.

○ 현재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*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. 다만, 해외 유입 가능성과 최근 여름철 발생 증가 사례를 고려해, 코로나19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*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(명) : (4월5주) 127 → (5월1주) 115 → (5월2주) 146 → (5월3주) 100

□ 이한경 본부장은 청주의료원 관계자로부터 감염병 관리체계와 예방접종을 현황을 보고받은 후, 의료원 내 음압격리병실을 살폈다.

○ 질병관리청에 따르면, 현재 사용 중인 백신(JN.1)은 최근 국내·외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씻기, 마스크 착용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

○ “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,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	책임자	과 장	김영빈 (044-205-6150)
	보건사회재난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이종섭 (044-205-6157)